

**Session 6 John's Loyalty and Jesus' Early Ministry (Jn. 1:19-4:42)**

**제 6 강 세례 요한의 충성됨과 예수님의 초기 사역 (요 1:19-4:42)**

**I. OVERVIEW OF JOHN 1-4**

**요한복음 1-4 장 개관**

- A. **Review:** In Luke 3, we see the beginning of John's ministry (summer AD 26) and that he baptized Jesus (autumn AD 26), followed by Jesus' temptation (Lk. 4:1-13).

**복습:** 누가복음 3 장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과 (AD 26 년 여름),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AD 26 년 가을). 그 뒤에는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다 (눅 4:1-13).

- B. **Overview of John 1-4:** The apostle John describes how Jesus went to Perea (1:28), Cana (2:1), Capernaum (2:12); Jerusalem (2:13), Judea (3:22), and Samaria (4:4). Only John gives a record of Jesus' early ministry in Judea (Jn. 2-4). The Synoptic writers began their narratives with Jesus' ministry in Galilee without mentioning His early ministry in Judea.

**요한복음 1-4 장 개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페레아(1:28), 가나 (2:1), 가버나움 (2:12), 예루살렘 (2:13), 유대 땅 (3:22), 그리고 사마리아로 (3:3) 가신 것을 묘사하고 있다. 오직 요한복음만이 유대 땅에서의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요 2-4 장). 공관 복음 저자들은 유대 땅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초기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스토리를 시작한다.

1. Jesus' first sign was at the wedding in Cana (2:1-11), then He cleansed the temple (2:13-22), then had a conversation with Nicodemus, (3:1-21) and with the Samaritan woman (4:1-42).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째 이적을 행하셨으며 (2:1-11), 성전을 깨끗케 하시고 (2:13-22), 그 이후 니고데모 (3:1-21),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다 (4:1-42).

2. Five disciples were referred to in these early days (1:35-51)—Andrew, Peter, Philip, Nathaniel and one unnamed – it is commonly accepted this was John.

이 초기 시기에는 5 명의 사도들이 언급된다 (1:35-52) –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그리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한 명이 있는데, 이 마지막은 보통 사도 요한으로 생각된다.

**II. JOHN THE BAPTIST DECLARED JESUS TO BE THE LAMB OF GOD (JN. 1:19-28)**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함 (요 1:19-28)**

- A. A deputation of priests and Levites were sent from Jerusalem to ask John about his ministry in Perea (Jn. 1:19-28). John identified Jesus as the Lamb of God (Jn. 1:29-34). The Pharisees were looking for a king who would deliver them from Roman oppression, not for a spiritual leader.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 페레아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묻는다 (요 1:19-28).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밝혔다 (요 1:29-34).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찾고 있었지, 영적인 지도자를 찾고 있지 않았다.

<sup>26</sup>John answered them, saying, "...there stands One among you whom you do not know.

<sup>27</sup>It is He... whose sandal strap I am not worthy to loose."<sup>28</sup>These things were done in Bethabara [Bethany] beyond the Jordan...<sup>29</sup>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6-29)

<sup>26</sup> 요한이 대답하되 ...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sup>27</sup> ...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sup>28</sup>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sup>29</sup>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6-29)

- B. **Beyond the Jordan:** This refers to the east side of the Jordan (in Perea). The city of Bethabara is also translated as Bethany (NIV and ESV); it was on the east side of the Jordan a few miles from Jericho. It is not the same Bethany where Lazarus was raised, near Jerusalem, west of the Jordan.

**요단 강 건너편:** 이는 (페레아 지역의) 요단 강 동편을 말한다. 베다니는 (또는 벳하바라) 요단 강 동편에 있었고 여리고에서 몇 마일 (몇 km) 떨어진 곳이었다. 이곳은 나사로가 살아난 베다니(예루살렘과 가까운 요단 강 서편)와는 다른 곳이다.

- C. **Lamb of God:** The One who died for our sins as a lamb (Isa. 53:7; cf. Gen. 22:8-14; Ex. 12:3-17; Isa. 53:12; 1 Pet. 1:19). This title joins together the truths about Jesus' purity, gentleness, and submission to God as the substitutionary atonement as the Passover lamb (Ex. 12: 21-27).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사 53:7; 비교. 창 22:8-14; 출 12:3-17; 사 53:12; 벧전 1:19). 이 호칭은 예수님의 정결함과 온화함, 그리고 유월절 어린양으로 (출 12:21-27)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모습의 진리를 모두 나타내준다.

- D. Notice three ideas repeated in three verses (Jn. 1:15, 27, 30)—*He that comes after me* (in the time of his birth and ministry), *He is preferred before me*—Jesus' supremacy over him (Mt. 3:11), and *He was before me* (1:30)—Jesus' pre-existence as the uncreated God with the Father. The high point of John the Baptist's testimony about Jesus is that He is the Son of God (1:34).

3 개 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3 가지 주제에 주목하라 (요 1:15, 27, 30). 내 뒤에 오시는 이 (요한의 뒤에 출생, 뒤에 사역을 시작하심), **나보다 앞선 분** – 예수님의 우월하심 (마 3:11), **나보다 먼저 계신 분** (1:30) – 예수님의 선재하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최고의 증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1:34).

<sup>30</sup>"This is He of whom I said, 'After me comes a Man who is preferred before me, for He was before me.'" ... <sup>32</sup>John bore witness, saying, "I saw the Spirit descending from heaven like a dove, and He remained upon Him. <sup>33</sup>I did not know Him, but He [the Father]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said to me, 'Upon whom you see the Spirit descending, and remaining on Him, this is He who baptizes with the Holy Spirit.' <sup>34</sup>And I have seen and testified that this is the Son of God." (Jn. 1:30-34)

<sup>30</sup>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 <sup>32</sup>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sup>33</sup>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sup>34</sup>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 1:30-34)

E. John's witness and the first disciples (Jn. 1:35-42). The transition from John to Jesus.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첫 제자들 (1:35-42).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감

<sup>35</sup> *Again, the next day, John stood with two of his disciples.* <sup>36</sup> *And looking at Jesus as He walked, he said, "Behold the Lamb of God!"* <sup>37</sup> *The two disciples heard him speak, and they followed Jesus.* <sup>38</sup> *Then Jesus turned...said to them, "What do you seek?" They said to Him, "Rabbi... where are You staying?"* <sup>39</sup> *...they came...and remained with Him that day (now it was about the tenth hour).* <sup>40</sup> *One of the two who heard John speak and followed Him, wa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up>41</sup> *He first found his own brother Simon [Peter] and said to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 <sup>42</sup> *he brought him to Jesus. Now when Jesus looked at him, He said, "You are Simon the son of Jonah. You shall be called Cephas" (which is translated, a Stone). (Jn. 1:35-42)*

<sup>35</sup>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sup>36</sup>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sup>37</sup>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sup>38</sup>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sup>39</sup> ...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sup>40</sup>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sup>41</sup>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베드로]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sup>42</sup>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 1:35-42)

1. **Two disciples:** Andrew and John (most consider the unnamed disciple to be John)

제자 중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 (대부분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제자를 요한으로 본다)

2. **The tenth hour:** This was 4 pm. Most assume that they remained with Jesus that night.

열 시쯤: 이 때는 오후 4 시였다. 대부분은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을 것으로 본다.

3. Jesus did not call them to follow Him as His disciples at this time. He did that some months later (Mt. 4:18-22; 9:9; Mk. 1:16-20; 2:13-14; Lk. 5:1-11, 27-28). John relates Jesus' intimate conversion with these men, while Matthew, Mark and Luke relate their call to be disciples.

예수님께서서는 이 때 그들에게 그분의 제자로 따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그분은 몇 달 후에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마 4:18-22; 9:9; 막 1:16-20; 2:13-14; 눅 5:1-11, 27-28). 요한 복음은 이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들이 제자로 부름 받는 것에 대해 말한다.

4. Jesus gave Simon a new name “Peter”—a rock—so that he would see himself as who God was making him to be. The impulsive Simon would become a steadfast rock from whom others might draw strength. He gave him a new name to express his new character. *Cephas* is Aramaic, and means *Rock*. *Peter* is the English form of *Cephas* from the Greek, *Petros*.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에게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그가 알 수 있게 하셨다. 충동적이었던 시몬은 다른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안정적인 반석과 같은 이가 된다. 그분은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그의 새로운 성품을 알게 하셨다. **게바**는 아람어로서 **반석**을 의미한다. **베드로(피터)**는 게바의 영어 이름으로써 헬라어 **페트로스**에서 왔다.

- F. Jesus found Philip (Jn. 1:43-44), who witnessed to Nathaniel (Jn. 1:45-51), either before traveling to Galilee or soon after arriving there. Someone could walk from Bethany-beyond-the-Jordan to Galilee in two days. So these five men were probably friends before becoming followers of Jesus.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내셨으며 (요 1:43-44), 이는 갈릴리로 가기 이전이나 그곳에 도착한 직후였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요 1:45-51).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Bethany-beyond-the-Jordan)에서 갈릴리까지는 걸어서 2 일이 걸렸다. 이 다섯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마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sup>43</sup>*The following day Jesus wanted to go to Galilee, and He found Philip and said to him, “Follow Me.”* <sup>44</sup>*Now Philip was from Bethsaida, the city of Andrew and Peter.* <sup>45</sup>*Philip found Nathanael and said to him, “We have found Him of whom Moses...and the prophets, wrote...”* <sup>46</sup>*Nathanael said to him, “Can anything good come out of Nazareth?”* <sup>47</sup>*Jesus saw Nathanael coming toward Him, and said of him, “Behold, an Israelite indeed, in whom is no deceit!”* <sup>48</sup>*Nathanael said to Him, “How do You know me?” Jesus answered..., “...when you were under the fig tree, I saw you.”* <sup>49</sup>*Nathanael...said to Him, “Rabbi, You are the Son of God...”* (Jn. 1:43-49)

<sup>43</sup>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sup>44</sup>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sup>45</sup>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 <sup>46</sup>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 <sup>47</sup>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sup>48</sup>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sup>49</sup>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 1:43-49)

- G. Jacob had an encounter with the Lord in a dream at Bethel (Gen. 28:10-22). Jesus referred to Jacob's encounter to describe the greater revelation that Nathanael and others would experience.

야곱은 베델에서 꿈에 주님을 만났다 (창 28:10-22).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의 경험을 인용하시며, 나다나엘과 다른 이들이 경험하게 될 더 큰 계시에 대해 말씀하셨다.

<sup>50</sup> *Jesus answered...,"Because I said to you, 'I saw you under the fig tree,' do you believe? You will see greater things than these."* <sup>51</sup> *He said to him, "Most assuredly...hereafter you shall see heaven open, and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upon the Son of Man."* (Jn. 1:50-51)

<sup>50</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sup>51</sup>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요 1:50-51)

1. The Son of Man brings the realities of heaven to God's people on earth.

인자(Son of Man)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실재를 가지고 오신다.

2. God is now revealing Himself to people directly through Jesus.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 III. JESUS' EARLY PUBLIC MINISTRY—MOSTLY IN JUDEA IN EARLY AD 27 (JN. 2-4)

예수님의 초기 사역 - 대부분 유대 땅에서, AD 27 년 초기 (요 2-4 장)

A. Jesus' first miracle was changing water to wine at Cana in Galilee in the spring AD 27 (Jn. 2:1-11). Jesus began His earthly ministry in context to a wedding feast, symbolizing the messianic banquet.

예수님의 첫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이었다 (AD 27 년 봄, 요 2:1-11).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결혼식에서 시작하셨으며, 이는 메시아께서 여실 잔치를 상징한다.

<sup>1</sup> *On the third day there was a wedding in Cana of Galilee, and the mother of Jesus was there.*

<sup>2</sup> *Now both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invited to the wedding.* <sup>3</sup> *And when they ran out of wine, the mother of Jesus said to Him, "They have no wine."* <sup>4</sup> *Jesus said to her, "Woman, what does your concern have to do with Me? My hour has not yet come."* <sup>5</sup>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Jn. 2:1-5)

<sup>1</sup>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sup>2</sup>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sup>3</sup>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sup>4</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sup>5</sup>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 2:1-5)

B. *Third day*: That is, the third day after Nathanael met Jesus. John referenced several days (1:29, 35, 43; 2:1). On day 1, a group questioned John (1:19- 28). On day 2, John declared Jesus was the Lamb of God (1:29-34). On day 3, John's disciples, Andrew and John, followed Jesus (1:35-42). On day 4, Philip and Nathanael met Jesus (1:43-51), and on day 7, attended a wedding (2:1-11).

**사흘째 되던 날:** 이 날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 3 일째 되는 날이었다. 요한은 몇 개의 날을 언급했다 (1:29, 35, 43; 2:1). 첫째 날에는 한 그룹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다 (1:19-28). 둘째 날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했다 (1:29-34). 셋째 날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다 (1:35-42). 넷째 날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고 (1:43-51), 일곱째 날에는 결혼식에 참석했다 (2:1-11).

- C. Mary knew Jesus was recently anointed by the Spirit and thought it might be time for Him to begin to *openly manifest* His power (2:3). Jesus publicly demonstrated His power first in Jerusalem. The hour of *publicly* manifesting His power was not at hand. Mary gathered from His response to her that He intended to help, so she told the servants to obey Him without making a big display (2:5).

마리아는 최근에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능력을 드러내어 나타내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다 (2:3). 예수님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 그분이 능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는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었다. 마리아는 그분의 반응을 파악한 후, 종들에게 그분께 순종할 것을 말했다 (2:5).

- D. **Woman:** Calling Mary “woman” was not disrespectful, but He wanted her to know that she must no longer think of Jesus *only* in terms of being her son—He was her Lord. He wanted her to know that their relationship was now changing as He entered His messianic ministry. Jesus was explaining to Mary that He would handle the situation, on His terms—in obedience to His Father.

**여자여:**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녀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신 것이었다. 그분은 그녀의 주님이었다.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님은 그녀가 알아왔던 관계가 변하고 있음을 알기 원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을 마리아에게 설명하고 계셨다.

- E. Jesus spoke of “His hour” as the time of His death and its consequences (Jn. 5:28-29; 7:30; 8:20; 12:23, 27; 13:1; 17:1)—the hour He was to return to the Father (13:1) and be glorified (17:1).

예수님은 “그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 이후 일어날 일 (요 5:28-29; 7:30; 8:20; 12:23, 27; 13:1; 17:1),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시간 (13:1),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때에 대해 말씀하셨다 (17:1).

- F. Jews had strict purification laws related to washing their hands, their utensils, etc.

유대인들은 손을 씻거나 집기를 사용하는 일 등에 대해 엄격한 정결 예법을 가지고 있었다.

*<sup>6</sup>Now there were set there six waterpots of stone, according to the manner of purification of the Jews, containing twenty or thirty gallons apiece. <sup>7</sup>Jesus said to them, “Fill the waterpots with water.”...<sup>9</sup>When the master of the feast had tasted the water that was made wine, and did not know where it came from...[he] called the bridegroom. <sup>10</sup>And he said to him, “Every man at the beginning sets out the good wine, and when the guests have well drunk, then the inferior. You have kept the good wine [ best, NIV] until now!”...<sup>11</sup>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Jn. 2:6-11)*

<sup>6</sup>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sup>7</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 <sup>9</sup>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sup>10</sup>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최고의]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sup>11</sup> ...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 2:6-11)

- G. Each waterpot held around 25 gallons; thus six waterpots together might hold 150 gallons of liquid. A normal bottle of wine today is about 25 ounces (128 ounces in one gallon)—about 5 standard-sized bottles hold about one gallon of wine—150 gallons would be over 700 bottles of wine.

각 돌 항아리는 약 25갤런(약 95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섯 개의 돌 항아리는 총 150갤런(약 550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포도주 병은 약 25온스를 담을 수 있다 (1갤런 = 128온스, 1리터 = 33온스). 따라서 5개의 표준 크기 포도주 병은 포도주 1갤런에 해당했다. 총 150갤런은 700 병의 포도주 정도였다.

- H. Jesus went to Capernaum with His family and disciples, about 15 miles from Cana (2:12). Later, Jesus made Capernaum His ministry base and moved there from Nazareth (Mt. 4:13; Mk 1:21; 2:1).

예수님은 가족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며, 이는 가나에서 15 마일(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2:12). 그 후,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사역 근거지로 삼으셔서, 나사렛에서 이곳으로 이동하셨다 (마 4:13; 막 1:21; 2:1).

<sup>12</sup>After this He went down to Capernaum, He, His mother, His brothers, and His disciples; and they did not stay there many days. (Jn. 2:12)

<sup>12</sup>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요 2:12)

#### IV. JESUS' FIRST VISIT TO JERUSALEM (JN. 2:13-3:21)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요 2:13-3:21)

- A. Jesus' first Passover after He was anointed by the Spirit was in April, AD 27. He traveled about 90 miles from Capernaum to Jerusalem to attend. He wanted the leaders of Israel to have the first opportunity to accept Him as the Messiah.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후의 첫 번째 유월절은 AD 27 년 4 월이었다. 그분은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90 마일(약 144km) 정도를 이동하셨다. 그분은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 B. Jesus cleansed the temple during Passover (Jn. 2:13-22). He cleansed the temple three years later (Lk. 19:45-48). This was His first public act as Messiah.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 기간 동안 성전을 깨끗케 하셨다 (요 2:13-22). 그분은 3년 후에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케 하신다 (눅 19:45-48). 이 일은 그분이 메시아로서 공개적으로 하신 첫 번째 행동이었다.

<sup>13</sup>Now the Passover of the Jews was at hand,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sup>14</sup>And He found in the temple those who sold oxen and sheep and doves, and the money changers doing business. <sup>15</sup>When He had made a whip of cords, He drove them all out of the temple, with the sheep and the oxen and poured out the changers' money and overturned the tables. <sup>16</sup>And He said to those who sold doves, "Take these things away! Do not make My Father's house a house of merchandise!" <sup>17</sup>Then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wa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has eaten Me up." (Jn. 2:13-22)

<sup>13</sup>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sup>14</sup>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sup>15</sup>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sup>16</sup>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sup>17</sup>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요 2:13-22)

1. Only John mentioned the cleansing of the temple at the beginning of Jesus' ministry. This reveals an important aspect of Christ's character which is ignored by many today.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성전을 깨끗케 하신 일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된다. 이 부분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중 중요한 부분을 밝혀주고 있다.

2. The Old Testament predicted that Messiah would come and purify the Levites (Mal. 3:1-3). The prophecy was partially fulfilled by this.

구약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실 것을 예언했다 (말 3:1-3). 이 예언은 여기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 C. Why did Jesus not answer clearly? He sometimes offends the mind to reveal the heart.

예수님은 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셨는가? 그분은 때때로 마음을 실족케 하셔서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

<sup>18</sup>The Jews...said to Him, "What sign do You show to us, since You do these things?" <sup>19</sup>Jesus... said to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sup>20</sup>Then the Jews said, "It has taken forty-six years to build this temple...?" <sup>21</sup>He was speaking of the temple of His body. (Jn. 2:18-21)

<sup>18</sup>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sup>19</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sup>20</sup>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 <sup>21</sup>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2:18-21)

- D. This provides a chronological marker, helping us to date His visit to the temple in AD 27. The work of rebuilding the temple began in 19 BC (18th year of Herod's reign); 46 years later is AD 27.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시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그분이 이곳을 AD 27 년에 방문하셨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성전 재건은 BC 19 년에 시작되었으며 (헤롯 통치 18 년차), 이로부터 46 년 이후는 AD 27 년이다.

- E. Jesus did many signs *publicly* so that many believed (Jn. 2:23-25). However, Jesus knew they were following Him to see the miraculous and not out of genuine desire to be right with God.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표적을 **공개적으로** 행하셨는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다 (요 2:23-35).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 따르고 있었을 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다.

<sup>23</sup>Now when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many believed in His name when they saw the signs which He did. <sup>24</sup>But Jesus did not commit Himself to them, because He knew all men, <sup>25</sup>and had no need that anyone should testify of man, for He knew what was in men. (Jn 2:23-25)

<sup>23</sup>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sup>24</sup>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sup>25</sup>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 2:23-25)

1. The people sought a political king, not a spiritual deliverer. He knew the men were interested in miracles and not spiritual reform. They wanted the miraculous to serve their own purposes.

이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자가 아닌 정치적인 왕을 구하고 있었다. 그분은 사람들이 기적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개혁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 기적들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뤄지길 원했다.

2. He knew their enthusiasm from seeing miracles would soon dissipate. Many who believed turned against Him later (Jn. 6:15, 60, 66). He did not place His destiny in the hands of any others—He was not dependent on human approval.

그분은 표적들로 인한 그들의 열심이 곧 사라질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을 믿었던 많은 이들은 이후에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 (요 6:15, 60, 66). 그분은 자신의 부르심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 F. Nicodemus was a Pharisee and a member of the Sanhedrin (Jn. 3:1; 7:50-51). Jerusalem was stirred up after Jesus cleansed the temple and did miracles that caused many to want to follow Him.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다 (요 3:1; 7:50-51).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소란스러워졌다.

<sup>1</sup>“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ruler of the Jews. <sup>2</sup>This man ca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to Him,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come from God; for no one can do these signs that You do unless God is with him.” <sup>3</sup>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Most assured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sup>4</sup>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sup>5</sup>Jesus answered, “Most

*assuredly...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sup>6</sup>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Jn 3:1-6)*

<sup>1</sup>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sup>2</sup>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sup>3</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sup>4</sup>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 <sup>5</sup>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sup>6</sup>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 3:1-6)

1. Many believe that being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refers to natural birth and spiritual birth. Water refers to the amniotic fluid that breaks from the womb shortly before childbirth.

많은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을 육신적, 영적 태어남으로 보고 있다. 물은 아기가 태어날 때 자궁에서 나오는 양수를 말한다.

2. Some propose that being born of the water and spirit *both* speak of the new birth. The Old Testament often used water to speak of spiritual cleansing and empowering when associated with the ministry of the Spirit (Isa. 32:15; 44:3-5; 55:1-3; Jer. 2:13; 17:13; Ezek. 47:9; Zech. 14:8). In Ezekiel 36:25-27, water and spirit come together to signify cleansing and salvation.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모두**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약은 종종 물을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서 영적으로 깨끗케 되고 힘을 얻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사 32:15; 44:3-5; 55:1-3; 렘 2:13; 17:13; 겔 47:9; 슥 14:8). 겔 36:25-27 절에서 물과 영은 함께 정결케 함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

- G. Jesus explained that He could speak about heavenly things because He had descended from heaven and was presently in a dynamic connection with heaven and His Father.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하늘의 것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음을 설명하셨으며, 이것이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여전히 하늘과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설명하셨다.

<sup>13</sup>*No one has ascended to heaven but He who came down from heaven, that is, the Son of Man who is in heaven.* <sup>14</sup>*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even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sup>16</sup>*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n. 3:13-16)

<sup>13</sup>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sup>14</sup>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 <sup>16</sup>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3-16)

## V. THE BAPTIST'S RESPONSE TO JESUS' MINISTRY (JN. 3:22-30)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 (요 3:22-30)

- A. Jesus was with His disciples who were baptizing in Judean countryside (Jn. 3:22), summer AD 27. The location of Aenon (lit. springs) near Salim points to a site a few miles west of the Jordan River.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의 외곽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으며 (요 3:22), 이 때는 AD 27 년 여름이었다. 살렘 근처의 애논(문자적인 의미: 샘)이라는 설명은 요단 강 서쪽 몇 마일 떨어진 곳을 말해준다.

<sup>22</sup>“*After these things Jesus and His disciples came into the land of Judea, and there He remained with them and baptized.* <sup>23</sup>*Now John also was baptizing in Aenon near Salim... (Jn. 3:22)*

<sup>22</sup>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sup>23</sup>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 (요 3:22-23)

- B. Jesus was revealed by John the Baptist as the Bridegroom God (Jn. 3:29). Jesus is a Bridegroom; thus, He feels, thinks, and acts as a Bridegroom forever. He *has* the bride. From ages past, the Father promised to give Jesus a Bride as His inheritance, and Jesus was committed to purchase her on the cross. God's commitments could not be stopped.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신랑이신 하나님임을 알렸다 (요 3:29).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영원히 신랑의 감정과 생각, 신랑의 행동을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신부를 취하신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신부를 그분의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행하기로 한 일은 아무도 멈출 수 없다.

<sup>25</sup>*There arose a dispute between some of John's disciples and the Jews about purification.*

<sup>26</sup>*And they came to John and said, "...He [Jesus] is baptizing, and all are coming to Him!"*

<sup>27</sup>*John...said, "A man can receive nothing unless it has been given to him from heaven..."*

<sup>29</sup>*He who has the bride is the bridegroom; but the friend of the bridegroom...rejoices greatly because of the bridegroom's voice..." (Jn. 3:25-29)*

<sup>25</sup>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sup>26</sup>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예수님]가 침례를 베풀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sup>27</sup>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 <sup>29</sup>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 3:25-29)

- C. John functioned in ministry as a *friend of the Bridegroom*. This speaks of having a specific message and spirit in ministering to people. The message is to make known Jesus' desire, beauty, and commitments as the Bridegroom God and to call people to love Him with all their heart.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했다. 이는 사람들을 향해 구체적인 메시지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갈망과 아름다움, 신랑이신 하나님으로서의 헌신을 알리며, 사람들이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 VI. JESUS' MINISTRY IN SAMARIA (JN. 4:1-42)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요 4:1-42)

- A. Jesus returned to Galilee through Samaria (Jn. 4:1-4). To avoid premature trouble due to growing popularity, Jesus went to Galilee. Some Jews walked *around* Samaria. Jesus *needed* to go *through* it, probably because the Spirit led Him, so He could speak to the Samaritan woman. The Samaritans had a mixture of Judaism and heathenism (2 Kgs. 17:26-41). Samaritans refused to recognize Jerusalem as the place of worship and chose their sacred Mount Gerizim.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요 4:1-4). 예수님은 늘어가는 대중으로 인해 때 이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고자 갈릴리로 가셨다. 어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서 걸어갔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수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는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섞여 있었다 (왕하 17:26-41).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대신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인정하고 있었다.

<sup>1</sup>Therefore, when the Lord knew that the Pharisees had heard that Jesus made and baptized more disciples than John <sup>2</sup>(though Jesus Himself did not baptize, but His disciples), <sup>3</sup>He left Judea and departed again to Galilee. <sup>4</sup>But He needed to go through Samaria. (Jn. 4:1-4)

<sup>1</sup>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sup>2</sup>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sup>3</sup>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sup>4</sup>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 4:1-4)

- B. The woman at the well in the city of Sychar in Samaria (Jn. 4:5-26). That is still a famous well which Jacob dug. The site is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and the deep spring still flows. The sixth hour would have been noon. Jesus shared our fatigue and thirst in His humanity (Heb. 4:15-16).

이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다 (요 4:5-26). 이 우물은 야곱이 판 것으로, 현재까지도 유명하다. 이 장소는 유명한 관광지이며, 깊은 샘에서 아직도 물이 흘러 나온다. 여섯 시쯤은 정오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고 피곤함과 갈증을 겪는 분이였다 (히 4:15-16).

<sup>5</sup>He came to a city of Samaria which is called Sychar... <sup>6</sup>Jacob's well was there. Jesus therefore, being wearied from His journey, sat thus by the well. It was about the sixth hour [noon].

<sup>7</sup>A woman of Samaria came to draw water. Jesus said to her, "Give Me a drink."<sup>8</sup>For His disciples had gone away into the city to buy food. (Jn. 4:5-8)

<sup>5</sup>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 <sup>6</sup>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정오] 되었더라 <sup>7</sup>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sup>8</sup>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요 4:5-8)

- C. The Jews regarded the Samaritans as unclean heathen idolaters. Jesus called her to "drink"— in the Greek this speaks of continuous action (Jn. 4:14).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이방 우상 숭배자로 여기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에게 "마시라"고 하셨으며,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요 4:14).

<sup>9</sup>Then the woman of Samaria said to Him, "How is it that You, being a Jew, ask a drink from me, a Samaritan woman?" For Jews have no dealings with Samaritans. <sup>10</sup>Jesus answered and said to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who says to you, 'Give Me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sup>14</sup>[Jesus said] "...who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will never thirst."<sup>15</sup>The woman said 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that I may not thirst, nor come here to draw." (Jn. 4:9-15)

<sup>9</sup>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sup>10</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 <sup>14</sup>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sup>15</sup>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요 4:9-15)

- D. She was surprised and stirred by Jesus knowing about her marital relationships (Jn. 4:16-19).

그녀는 예수님이 그녀의 결혼 상태를 아는 것으로 인해 놀랐고, 흥분했다 (요 4:16-19).

<sup>16</sup>Jesus said to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here." <sup>17</sup>The woman answered and said, "I have no husband." Jesus said...<sup>18</sup>for you have had five husbands, and the one whom you now have is not your husband...<sup>19</sup>The woman said to Him, "Sir, I perceive that You are a prophet. (Jn. 4:16-19)

<sup>16</sup>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sup>17</sup>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sup>18</sup>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sup>19</sup>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요 4:16-19)

- E. The Samaritan woman spoke of Jesus to others, and many in her city believed (Jn. 4:25-30, 39-42). The openness of the Samaritans contrasts with the hostility of many Jewish hearers.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했고, 그녀가 있던 곳의 많은 이들이 믿었다 (요 4:25-30, 39-42). 사마리아인들이 마음을 연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보인 것과는 대조된다.

<sup>25</sup>The woman said..., "I know that Messiah is coming"...<sup>26</sup>Jesus said..., "I who speak to you am He"...<sup>28</sup>The woman...went her way into the city, and said to the men, <sup>29</sup>"Come, see a Man who told me all things that I ever did"...<sup>39</sup>And many of the Samaritans of that city believed in Him because of the word of the woman who testified... (Jn. 4:25-39)

<sup>25</sup>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 <sup>26</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 <sup>28</sup> 여자가 ...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sup>29</sup>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 <sup>39</sup>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요 4:25-39)